

다니엘서 - 번호 92

예언의 베일을 걷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여섯 절의 삼중적 적용과 셋째 천사의 점증하는 빛

Jeff Pippenger
2024-02-25

밀러주의 운동에서 지식의 증가가 봉인이 풀려 드러났고, 그것은 주로 미국의 스스로 개신교인이라 칭하는 이들을 시험했지만,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교황권 지배의 암흑에서 나오던 사데 교회는 하늘의 성소가 열릴 때 드러나게 될 복음에 대한 보다 충만한 이해로 인도되고 있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운동에서 지식의 증가가 2001년 9월 11일에 봉인이 풀렸고, 그것은 전 세계의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를 시험했다. 이 때문에 지식의 증가의 근원인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나타난 진리가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의 저항을 받았다.

참된 터 위에 세우는 몇 안 되는 신실한 건축자들(고린도전서 3:10, 11)은 거짓 교리의 쓰레기가 그 일을 가로막자 당혹해하며 방해로 받았다.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건축자들처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었다. '짐을 지는 자들의 힘이 쇠하고, 잔해가 너무 많아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겠다.' 느헤미야 4:10. 박해, 사기, 불의, 그리고 그들의 전진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꾸며낼 수 있는 모든 다른 장애물들과 끊임없이 싸우느라 지쳐, 신실한 건축자였던 일부는 낙담하였다. 그리고 평안과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참된 터에서 돌아섰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원수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선언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14절). 그리고 그들은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계속하였다. 에베소서 6:17.

진리에 대한 같은 미움과 반대의 영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고무해 왔고, 같은 경계와 신실함이 그분의 종들에게 요구되어 왔다. 첫 제자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이에게 하노니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37." 대쟁투, 56.

다니엘서 마지막 여섯 절의 기별을 제시하는 일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내 자비량 사역들의 환경에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저명한 신학자들(학자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기별을 실추시키려는 시도로 사용된 무기들은 예외 없이 검토와 공격의 대상이 된 그 절들에 대해 더 큰 빛과 명료성을 가져왔다. 그러한 공격은 마침내 이전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예언적 이해로 이어졌고, 그 이해들은 확립되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전진하는 빛의 일부임이 판명되었다.

밀러주의자들은 성경 예언에서 네 제국만을 인정했지만, 1844년 직후 미국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이해가 생겼고, 그 이해는 교황권이 단순히 로마 제국의 일부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 예언의 다섯째 제국임을 분명히 했다.

큰 붉은 용,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특히 짓밟고 그의 백성을 박해하는 데 앞장설 세상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이 전쟁은 세상 끝까지 계속된다. 거룩한 여자와 그 자녀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소수로 묘사되었다. 마지막 날들에는 오직 남은 자만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들에 관해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한다.

사탄은 먼저 이교를 통하여, 이어서 교황권을 통하여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땅에서 지워 없애려는 노력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였다. 이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은 동일한 용의 영에 의해 움직였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는 교황권이 더 위험하고 잔혹한 원수였다는 점뿐이었다. 사탄은 로마 가톨릭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세상을 포로로 삼았다.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던 교회가 이 미혹의 대열에 휩쓸렸고, 천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용의 진노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며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이어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와 율법에 맞서 전쟁을 벌일 마지막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예언의 준엄한 필치는 이 평화로운 장면에 변화가 일어남을 드러낸다.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 용의 목소리로 말하며, '그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예언은 그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개신교는 교황권의 발자취를 따른다. Signs of the Times, 1899년 11월 1일.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봉인이 풀렸을 때, 그 여섯 절에 묘사된 일련의 전개가 화이트 자매가 '이교', '교황권', '개신교'라고 규정한 세 세력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음이 알려졌다. 원수는 41절의 '영화로운 땅'이 개신교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상징한다고 주장했지만, '영화로운 땅'은 미국이며, 41절에서 북방의 왕(교황권)은 머지않아 탁칠 일요일법령 때 미국을 정복한다. '영화로운 땅'을 미국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규정하는 사탄적 오류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 나타내는 기간에서 1989년 소련 붕괴 이후에 이어질 다음 예언적 사건이 임박한 일요일법령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이것은 41절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은혜의 시기의 종결을 가리키고 있으며,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논의를 이끄셔서,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이교 로마가 세계를 장악했을 때 다니엘서 8장에서 표상된 바와 같이 먼저 세 개의 지리적 세력을 정복해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지점에 이르게 하셨다.

그 중의 하나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니엘서 8:9.

'남쪽', '동쪽', '아름다운 땅'은 이교 로마가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으로서 세상의 왕좌에 오르며 장악한 세 지리적 지역을 가리킨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었다. 또한 다니엘서 7장이 보여 주듯, 교황 로마도 성경 예언의 다섯 번째 왕국으로서 세상의

왕좌에 오르는 과정에서 세 지리적 세력을 극복해야 했다.

내가 그 뿔들을 생각하는 중에, 보라,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그 앞에서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뿔이 뿌리째 뽑혔다. 또 보라,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다. 다니엘 7:8.

사십일절의 '영화로운 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속에서 주님은 예언 속에 로마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을 밝히셨다. 이교 로마가 있었고, 그 뒤를 이은 교황 로마가 있었으며, 우리가 '현대 로마'라고 부르는 말세의 로마가 있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진리는 두 증인의 증언으로 확립된다는 것이라는 예언의 건전하고 확립된 두 진리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북방 왕 앞에 놓인 세 장애물이 현대의 세 지리적 세력을 나타내야 한다고 흔들림 없이 결론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8.

또한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8:17.

이번 깨달음은 우리가 이미 결론지은 바를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영화로운 땅'을 지리적 세력(미국)으로 규정해 왔고, 그것이 영적 세력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거부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이 없다는, 줄곧 확증되어 온 믿음에 근거하여 이러한 입장을 세웠다.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산이라는 것은 많은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분명하다.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들릴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오리라.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사야 2:2, 3.

'영광스러운 땅'을 교회라고, 더구나 흔히 그것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 땅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피상적인 추론은 45절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세 교회이므로 '영광스러운 땅'도 역시 교회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어차피 둘 다 '영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다. 다니엘이 '영광스러운'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땅'을 사용하고, 네 절 뒤에는 역시 '영광스러운'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거룩한 산'을 사용할 때, 그는 땅과 산을 의도적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문자적 의미의 '영광스러운 땅'은 유대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해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 자리한 영토는 유대 땅이다.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 가운데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진리가 확립되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로마의 세 가지 양상을 식별하는 예언의 배경만 간단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현대 로마의 예언적 특성을 입증하는 두 증인임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고 부른 해석의 원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특정 예언이 세 번 반복된다는 유사한 생각을 사용한 이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결국 받아들여지게 된 정의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정의다. Future for America가 자주

적용하는 이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는 예언적 규칙이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을 둘러싼 논증 과정에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논증이 예언의 삼중 적용이 로마에 관한 것임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한 가지 논쟁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니엘의 백성의 '강탈자들'인지, 아니면 밀러파가 이해했듯이 그 '강탈자들'이 로마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의 백성을 '강탈하는 자들'로서의 로마가 다니엘 11장 14절에서 '환상을 세울'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많은 이가 일어나 남방 왕을 대적할 것이요, 또 네 백성 중 강포한 자들도 스스로 높여 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다니엘 11:14.

우리가 예언의 삼중 적용을 처음 이해했을 때, 그것은 성경 예언 속에 로마의 세 가지 양상이 있다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로마는 밀러라이트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점점 밝아지는 빛의 이상을 정립했다. 밀러라이트 역사에서, 이교주의와 교황주의가 성소와 군대를 짓밟은 세력들이라는 이해가, 밀러가 그의 "모든" 예언적 이해를 구축한 진리의 틀이 되었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은 퓨처 포 아메리카가 그 위에 모든 예언적 적용을 세워 온 진리의 틀을 확립했다. 그 틀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세 황폐케 하는 세력이다.

그 틀은 이교 로마와 그 뒤를 이은 교황 로마가 현대 로마를 규정하는 두 증인임을, 그리고 현대 로마가 심령주의의 용(유엔), 가톨릭의 짐승(교황권),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 선지자(미국)로 이루어진 삼중 연합임을 인정하는 데 기초해 있다. 그 틀을 우리는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고 부른다. 이어지는 글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다양한 예언의 삼중 적용들을 논의하고, 그것들이 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의 틀을 어떻게 이루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화잇 자매가 교권과 정권이라고 부른 현대 로마의 정치적·종교적 구조를 규정하는, 로마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한 삼중 적용을 살펴보겠다. 그 구조는 현대 로마의 특성을 규정하고 확립하기 위해 이교 로마의 예언적 특성과 교황 로마의 예언적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규명된다.

우리는 니므롯, 느부갓네살, 벨사살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세 가지 양상에 대한 삼중적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불법의 사람'의 교만을 드러내며, 이사야는 그를 '오만한 앗수르 사람'으로 지목했다. 성경 예언의 주제인 교황권의 오만은 현대 바벨론의 특성을 식별하고 정립하기 위해 바벨의 예언적 특징을 바벨론의 예언적 특징과 결합함으로써 인식된다.

우리는 말세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식별하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으로 대표된 엘리야의 세 가지 나타남에 대한 삼중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말세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특정한 파수꾼, 곧 하나의 운동을 가리키며, 시작과 끝이 유사한 그 운동 안에서 두 증인을 식별한다. 우리는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 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떤 차원에서는 첫째 천사의 운동을 셋째 천사의 운동과 분리할 수 없고, 두 운동 모두 엘리야와 세레 요한으로 예표된 파수꾼으로 대표된다.

우리는 글과 말로 그 선포를 전하며, 그들의 순서와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끄는 예언들의 적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없이는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출판물과 강연을 통해 이 기별들을 세상에 전하되, 예언적 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5쪽.

우리는 세레 요한과 윌리엄 밀러로 대표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세 가지 현현에 대한 삼중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최종 파수꾼은 예언의 대상이며, 말라기 3장의 최종 성취를 식별하기 위해 세레 요한과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특성을 결합함으로써 인식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가 구하는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라기 3:1.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첫째 화와 둘째 화에서 드러난 이슬람의 예언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이슬람의 세 가지 양상의 삼중 적용을 살펴볼 것이며, 이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확인되는 셋째 화의 이슬람의 예언적 특징을 밝혀 준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두뇌 역할을 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당신을 대신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보물도 각고의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무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스스로 살피고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 노력 없이, 또한 진리의 순수한 알곡에서 사람들이나 사탄이 진리의 교리를 왜곡하는 데 섞어 놓은 쪽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 없이 얻을 수 없다. 사탄과 그와 결탁한 인간 대리인들은 오류의 쪽정이를 진리의 밀과 섞으려고 애써 왔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부지런히 찾고, 인간의 고안물과 하나님의 명령을 구별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구속의 계획과 관련된 크고 보배로운 진리를 구하는 자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모든 이에게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탐구해야 하며, 이는 말씀이 함의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이다. 광부가 금맥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땅을 탐사하듯이, 여러분도 사탄이 오랫동안 사람에게서 숨기려 해 온 그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그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기독교 교육의 기초, 307쪽.